

40,000그릇+α

10년 세월 쌓아 올린 사랑 듬뿍 ‘짜장면 탑’

전포2동 ‘우리 동네 짜장면 데이’ 2015년 중국집 대표들 모여 시작 매월 500여 명 대접, 주민들 동참

부산진구 전포2동(동장 신미선)에는 잘 봐야 보이는 ‘짜장면 탑’이 있다.

이 탑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탑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0년 넘게 지속돼온 ‘우리 동네 짜장면데이!’ 행사에서 매회 어려운 이웃 500여 명에게 무료로 제공된 짜장면 그릇을 쌓아 올린다면 높이가 수천 미터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그릇의 높이를 10cm만 잡아도, 4만 그릇을 쌓으면 최소 4,000m가 넘는다. 한 라산(1,950m)보다 배 이상 높다.

전포2동 ‘우리 동네 짜장면데이!’의 올해 첫 행사가 지난 18일 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흡서기 흡한기를 제외하고 1년에 8개월간 열린다. 이날도 저소득 어르신 500여 명이 한 끼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았다.

‘짜장면데이’는 2015년 초 시작됐다. 중식 업체 관리장성의 정용주 대표가 주축이 되어 ‘짜장면나눔봉사회’를 결성했다. 처음엔 3개 업체로 출발해 5개 업체로 늘었다. 장소는 전포2치안센터 주차장을 빌렸고, 천막을 설치했다. 직접 재료와 조리기구를 준비해 즉석에서 매회 어르신 500~700명을 대접했다. 뜻에 감동한 지역주민과 단체들도 봉사에 동참했다. 옮기고 차리고 치우는 일은 단체원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이번 달에는 전포2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짜장면데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됐다. 한곳에 모일 수 없어 도시락을 만들었다. 면은 불기 때문에 메뉴를 잡채밥 탕수육 등으로 바꿨다. 가정 배달 도움은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맡았다. 도시락 배달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어졌다. 경영난을 겪던 나머지 업체들이 빠지고 홀로 분투하던 관리장성 정 대표마저 코로나에 걸리며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열반점의 김사철 대표가 다시 합류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신축 전포2동주민센터 주차장에 터를 잡고 ‘짜장면데이’ 행사를 재개했다. “꾸준히 봉사하며 살자”는 이들의 취지에 공감한 전포새마을금고, 전포2동 주민자치회, 한국자유총연맹 전포2동위원회 강종철 위원장 등이 매월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문의:전포2동(605-6677)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 ‘착착’

3월 27일 제도 시행,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박지호 한의원·개금다나아내과 업무협약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부산진구도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우선적인 시행 목적인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준비이다.

특히 제도의 대상자들이 본인이 살던 집에서 의료 및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진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개금다나아내과의원과 협약을 시작으로 3월 9일 박지호한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들은 지원 연계 대상자를 위한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진구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계(605-4338)

고독사도 예방하고 신중년 일자리도 얻고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시 공모에 선정, 11월까지 ‘안전망’ 역할

부산진구는 지역 내 고독사 예방을 전담할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 주관 ‘2026년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 공모에 당당히 선정된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월과 3월 채용공고와 서류 심사, 면접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50~65세 미취업 신중년 9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3월 16일부터 고독사 예방 실무 및 현장 대응 매뉴얼 등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관내 주요 동주민센터로 배치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중년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배치된 인력은 오는 11월까지 약 9개월간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가정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복지 서비스 연계 보조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진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에게는 가치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1인가구에게는 더욱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일자리산업과 일자리창출계(605-4342)

1인가구 보듬는 동행상담 사업 개시

민관협력 선제적 현장 방문

부산진구는 올해 12월까지 민관협력 동행상담 ‘위로상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단절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8.9%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7.5%가 1인가구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위로상점’ 사업은 단순 급여 상담을 넘어 대상자의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위로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위로(Up)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문의: 생활보장과 통합조사2계(605-6332)